

惺齋 琴蘭秀의 ‘學退溪’ 精神과 ‘主敬涵養’ 工夫

崔 英 成*

• 目 次 •

I. 머리말	IV. 本源涵養과 主敬工夫
II. 惺齋의 生涯와 著述	V. 맺음말
III. 爲己之學과 ‘學退溪’ 精神	참고문헌

I. 머리말

惺齋 琴蘭秀는 月川 趙穆과 함께 이른 시기부터 退溪 李滉의 문하에 나아가 스승으로 모셨던 高足弟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나 종래 퇴계학과 안에서 그의 위치와 비중은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해 왔다. 오늘날 역시 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학계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퇴계’라는 우뚝한 인물을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스승의 그늘에 가려진 측면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재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유교적 전통에서는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논할 때 ‘三不朽’ 가운데 ‘立德’을 가장 높이 치고 ‘立功’을 그 다음으로 하였으며, ‘立言’을 맨 마지막에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지난날 아무리 덕이 높은 成德君子였고, 또 공이 많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술이 없으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예와 지금의 학문관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근대 학문이 지닌 한계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잘못된 것은 아닐까.

* 韓國傳統文化學教 教養學部(韓國哲學) 教授

本稿에서는 '篤信師門'의 정신으로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후세에 널리 전파하는 데 힘썼으며, 또 行誼로 이름이 높았던 성재 금난수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의 생애가 '學退溪의 정신'으로 일관되었던 만큼 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논의에 앞서 먼저 고백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펴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재집』에는 성재의 학문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다. 편지글이 십 수 편 있고 雜著가 약간 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술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詩篇을 중심으로 片言隻句를 모아 '聯珠의 功'을 이루어야 했다. 그렇게 하고서도 부족한 것은 『退溪全書』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병행해야만 하였다. 이것은 『논어』를 통해 孔門弟子의 學行을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은 事理이다. 이 점 독자 제현의 양해를 구한다.

성재의 연구 자료로는 문집이 있고 이밖에 필사본 '惺齋日記'가 있다고 한다.¹⁾ 그런데 『일기』의 경우 아직 학계에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 주요 자료로 이용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後放를 기약한다. 본고에서는 '陶山及門諸賢集' 제1권(아세아문화사 영인, 1982)에 실린 '惺齋集'을 底本으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惺齋의 生涯와 著述

琴蘭秀(1530~1604)의 자는 聞遠이요 호는 惺齋이다. 본관이 奉化로 고려 때의 명신 英烈公 琴儀(1153~1230)의 후손이며 僉知公 琴憲(자는 憲之)의 아들이다.²⁾ 중종 15년 경상도 禮安縣에서 태어나 선조 32년에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선조들은 본시 봉화에 世居하였는데, 고조부 淑의 대에 이

1) 금난수의 靑孫이 소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하는 『연보』에 의한다.

르러 예안의 浮浦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예안은 조선 유학의 巨峯인 퇴계 이황의 고향이기도 하다.

성재는 12세에 학문의 길에 들어 처음 靑溪 金璣에게 수학하였다. 청계는 鶴峯 金誠一의 부친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金克一·金守一·김성일 형제들과 일찍부터 交遊하게 되었다. 18세(1547)부터는 淸涼山 普賢庵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修業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山寺를 왕래하면서 학업에 정진하였다. 청량산 上仙庵과 蓮臺寺·玄妙寺·安中庵·滿月庵 등은 그가 수학하던 곳이다. 특히 보현암의 경우 그가 18세부터 35세까지 20년 가깝게 왕래하면서 12, 3년 정도 공부한 곳으로서,³⁾ 그는 특별히 「普賢庵壁上書前後入山記」를 지어 『문집』에 남기기도 하였다.

성재는 퇴계의 負笈弟子 가운데 월천 조목(1524~1606)과 함께 퇴계의 薰陶를 가장 일찍부터 받은 先進 가운데 한 사람이다.⁴⁾ 그는 成冠한 뒤 同鄉 출신 선배인 조목과 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21세(1550) 때에는 조목의 권유로 퇴계의 문하에 나아가 弟子禮를 올리게 된다. 조목은 同門이면서 사사롭게는 성재의 처남이 된다. 성재의 부인 橫城趙氏는 조목의 누이 동생이었다. 兩賢의 이러한 관계는 조목이 성재에게 바친 挽詞에서 “물 너머 사시던 님 이제는 세상을 隔하셨네. 형제의 情誼 돈독하였거니와 하물며 동문임에랴”⁵⁾라고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퇴계 문하에서 西厓 柳成龍과 鶴峯 金誠一이 並稱되는 경우가 많듯이, 月·惺 양현 역시 곧잘 함께 일컬어지곤 한다. 이는 양현의 관계가 껍 돈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 성향 역시 비슷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퇴계의 편지글 중에는 ‘與趙士敬·琴聞遠’이라고 하여 두 사람 앞으로 보낸 것이 여러 통 있으며, 또 조목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지금 금난수가 무슨 학문을 하고 있으며 안부는 어떠한

3) 『惺齋集』 卷3, 「普賢庵壁上書前後入山記」, “蓋丁未以後, 至今甲子, 幾二十年, 往來于茲山者, 十有二三焉”(영인본 535면)

4) 『惺齋集』 卷4, 跋文 “先祖服事陶山, 陶薰最久”(566면)

5) 『惺齋集』 卷4, 「挽詞」, “隔水人今隔世魂, 弟兄情誼況同門”(556면)

지?”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

성재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2세 때(1561) 비로소 司馬試 生員科에 급제하였다. 그는 퇴계 문하에 나아갈 때부터 學業에 대한 생각을 謝絶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늙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부득이 應舉하였다. 이처럼 科業이 본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小成으로 만족하고 이후 大科에 대한 뜻을 버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조 10년(1579), 50세 때 遺逸로 齊陵參奉에 천거되어 임명된 이래, 集慶殿 참봉, 敬陵 참봉, 長興庫 直長, 掌隸院 司評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에는 향리에서 近始齋 金垓와 함께 義旅를 규합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역시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主敬 함양공부가 현실에 즉해서 의리사상으로 발현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67세(1596) 때 星州判官에 제수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70세 되던 해(1599) 3월 梓鄉인 봉화현감에 제수 되자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라 생각하고 부임하였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外職에 補任할 수 없는 것이 당시 國法이었다. 따라서 臺諫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 그해 8월 司憲府의 탄핵을 받아 마침내 遞職되고 말았다.⁶⁾ 사후 1605년(선조38)에는 왜란 당시 舉義한 공으로 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고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겸 經筵參贊官에 追贈되었다.

성재의 학자적 면모는 이론보다는 실천의 측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성리학을 자신의 중심 학문으로 하면서도 理氣心性論에 대해서는 거의 문자를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찍이 南冥 曹植이 踐履에 힘쓰면서 ‘程朱以後 不必著述’이라 하였듯이 성재 역시 ‘退溪以後 不必著述’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까? 남명 조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송나라 때 群賢이 講明해 놓은 것이 갖추어지고 극진해서, 물을 담아도 새지 않는 그릇처럼 빈틈이 없다. 후세의 학자들은 그것에 힘을 쓰는 것이 느슨한가, 맹렬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⁷⁾

6) 『宣祖實錄』 33년 8월 12일 壬午條 및 同 8월 27일 丁酉條 참조.

7) 『南冥集』 卷2, 19a 「答仁伯書」 “宋時群賢, 講明備盡, 盛水不漏. 後之學者, 只在用力

漢·唐 때의 유학자들은 도덕의 행실이 대강 있기는 하였지만, 도덕의 학문을 강구하지 않았다. 濂洛의 諸賢이 나온 이후로, 저술과 輯解에 階梯와 路脈이 해와 별처럼 밝아, 初學小生들도 책을 펴면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비록 고명한 스승이 귀를 당겨 알려준다 하더라도 前賢들의 가르침보다 조금도 더하지 못할 것이다.⁸⁾

그리하여 마침내 “程朱 이후에는 꼭 저술할 필요는 없다”고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뒷날 남명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성재 역시 그러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본다.

오늘에 전하는 『성재문집』 4권 1책은 1909년에 10대손 鼎基가 遺文을 수습하여 엮은 것이다. 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3백년 만에 上梓된 것이다. 東溪精舍의 失火에다 兵火와 蠹蝕을 겪으면서 당시까지 전해진 것을 모두 망라하기는 했으나 실로 초라한 형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성과 내용을 보면 권1에 시 109수, 권2에 書 18편과 잡저 10편, 권3에 記 3편, 銘 2편, 제문 2편과 연보로 되어 있으며 권4는 부록이다. 후손들에 의하면, 원래는 상당한 분량의 저술이 있었으나, 전체 분량 가운데 10분의 1, 2 정도만 수습된 것이라고 한다.⁹⁾ 그러나 本源涵養과 約禮를 중시하는 성재의 학문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저술에 힘써 많은 논저를 남겼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설령 지금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저술을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론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성재의 10세손 鼎基는 선조의 저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다행히 전하여 考據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밀한 의리(精義)에 관계된 것이다. 理氣를 辨析하여 道에 들어가는 關鍵을 보이고, 향약을 講明하고 닦아서 化民成俗의 規度를 드러냈으며, 글을 읽음에 장소의 闇靜(노정)에

之緩猛而已”

8) 『南冥集』 卷2, 19b~20a 「奉謝金進士肅夫」 “漢唐諸儒，粗有道德之行，而未講道德之學。濂洛諸賢以後，著述輯解，階梯路脈，昭如日星，初學小生，開卷洞見。雖明師提耳，萬不能略加於前賢指南”

9) 『惺齋集』 卷4, 跋文 “火于篋，逸于燹，所傳只有一二”(566면)

대한 경계가 있고 先人을 尙論함에 出處의 의리를 밝혔으니, 모두 다 스승으로부터 傳受한 것을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스승의 문집을 통해서 考據할 수 있는 이외에도 曲暢傍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전하지 않은 것이 더욱 슬프다.¹⁰⁾

그런데, “선조의 덕을 일컬어 후세에 밝게 드러내려는 것이 효자·효손의 심정”¹¹⁾일 것이나, 아쉽게도 위의 말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후손들 사이에서 성재가 저술에 힘썼는가의 여부를 두고 주장이 다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성재의 8대손 書述은 성재가 저술을 많이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퇴계 문하의 諸子는 實에 힘써 저술을 일삼지 않았다.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이를 따르고 이를 믿어, 퇴계선생의 말씀을 외우고 선생의 행동을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의 학문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퇴계 선생의 고향에서 태어나 선생의 門牆에 가까이 있으면서 親炙가 가장 오래된 이로 月川 이외에 문집을 간행한 일이 별로 없다.¹²⁾

또한 響山 李晚燾(1842~1910)는 『성재집』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선생께서는 陶山夫子의 고향에서 태어나시어 이른 나이에 及門하였다. 무릇 妙道의 精義를 발명함이 『도산전서』에 함께 보이니, 이것은 마치 『논어』에 공자 문인들의 문답을 신고 있어, 그 인품의 높고 낮음과 학문의 깊고 얕음을 살펴서 알 수 있음과 같다.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별도로 책을 編集코자 하지 않음으로써 남긴 글이 많이 흩어졌다.(……) 글이란 어찌 많기만을 바랄 것인가. 꼭 많을 것은 없다.¹³⁾

10) 『惺齋集』 跋文 “今幸傳而可攷者, 亦精義之所關也. 辨析理氣而示入道之關鍵, 講修鄉約而垂化俗之規度. 讀書而有闇靜之戒, 尙論而明出處之義, 皆足以發揮師傳, 而師集考據之外, 有可以曲暢傍證, 則其所不傳, 尤可慨也”(566면)

11) 『禮記』 「祭統」 “銘者自名也. 以稱其先祖之德, 而明著之後世, 此孝子孝孫之心也”

12) 『惺齋集』 卷4, 「遺事」 “溪門諸子務實, 不事著述. 惟先生是從是信; 誦先生之言, 服先生之行, 以爲己學. 是以生先生之鄉, 密邇門牆, 親炙最久者, 月川以外, 別無刊行文集焉”(551면)

13) 『惺齋集』 跋文 “先生生於陶山夫子之鄉, 早年登門. 凡妙道精義之發, 俱見於陶山全書,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君子多乎哉, 不多也'라 한 것과 「자로」편의 '雖多奚爲'를 이끌어 '以少是貴'(요점만을 들어 서술하는 것)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말이란 본시 설명을 할 때는 길게 늘어놓지만 결론은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한 법이다. 한 마디의 말이지만 體用이 該備된 경우도 있고, 반면에 여러 말을 했지만 단지 一端을 말하는 데 그친 경우도 있다.¹⁴⁾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만도의 말은 일단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이제 이 문집을 가지고 師門(퇴계)의 전서와 비교하여 살펴보니, 상호 발명하여 羽翼한 것이 적지 않으나, 아쉽게도 일찍부터 스스로 수습하지 않아서, 그저 全鼎의 一瓣(일련)을 맛볼 뿐이다. 비록 그러하나 曲禮가 3천 가지로되 한 마디로 말한다면 '毋不敬'일 것이요, 『尙書』 50편은 '欽'이라는 한 글자로 開卷第一義로 삼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이것이 '성성재'라고 써 주게 된 것임을 안다면, 開卷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미 欽·敬의 의미를 우리르게 되어, 그것을 스승으로 삼고 본받게 될 것이다.¹⁵⁾

그러나 拓菴 金道和(1825~1912)가 말한 바와 같이 "비록 片言半句라도 妙道の 精義를 발명한 것 아님이 없다"¹⁶⁾고 한 것은, 具眼之士의 안목이 아니고서는 얼른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는 弁卷의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례적인 修辭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옳을 성싶다.

성재의 학술과 사상을 살피는 데 있어, 후인들의 記述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 西垞 柳根이 撰한 「墓碣銘」은 간략한 데다가 알맹이가 없으

如論語之載孔門人問答, 其人品高下, 學問淺深, 可按而知也. 以故初不欲別立編集, 而遺文多放. (……) 文豈多乎哉? 不多也”(565면)

14) 『栗谷全書』 卷19, 12b 「聖學輯要」 “聖賢之說, 或橫或豎, 有一言而該盡體用者, 有累言而只論一端者”

15) 『惺齋集』 卷4, 李晚燾撰 「跋」 “今以此書, 參互師門全書, 其相發明而羽翼者不少, 惜乎! 不早自收拾, 而徒味全鼎之一瓣也. 雖然, 曲禮三千, 一言蔽之曰毋不敬, 尙書五十篇, 欽之一字, 爲開卷第一義. 後之人知此爲惺惺齋書, 則不待開卷, 已仰欽敬之義, 而有以師法之矣” (565면)

16) 『惺齋集』 序文 “嗚呼! 先生遺唾之得於航頭者, 雖片言半句, 莫非妙道精義之發耳” (507면)

며, 후손들의 기록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 아무래도 성재의 연구에는 난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Ⅲ. 爲己之學과 ‘學退溪’ 精神

문집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성재의 면모는 脫俗한 기상을 타고났다는 점과 시종 爲己之學에 힘썼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그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학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추구하였다. 『논어』 「先進」편을 보면, 曾點이 공자에게 자기의 뜻을 피력하면서

늦봄에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冠者 5~6명, 동자 6~7명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無雩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 하자, 공자가 喟然히 감탄하면서 “나는 點을 허여 한다”(吾與點也)고 한 대목이 있다.¹⁷⁾ 이에 대해 朱子は “曾點이 자기의 뜻을 말함에 있어 현재 처한 위치에 나아가 그 일상생활의 떳떳함을 즐기는 데 지나지 않았고, 처음부터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려는 뜻이 없었다”고 풀이하였다. 성재의 기상과 志趣는 이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성재는 25세(1554) 이전에 이미 선비의 出處進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때 東溪에 惺惺齋를 짓고 讀書藏修之所로 삼았던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퇴계는 같은 해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성재를 勉勵한 바 있다.

京外로 榜이 발표되자 합격, 불합격을 놓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물결이나 구름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本道의 방에는 그대의 이름이 없으니 비록

17) 『論語』 「先進」 “(……) 點曰：「莫春者，春服既成，冠者五六月，童子六七人，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夫子喟然嘆曰：「吾與點也。」”

나로서도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來書를 보니 이에 대한 한 마디의 언급이 없고, 산간에다 茅屋을 짓고 芭야흐로 舊業을 닦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맛보지 못한 바를 맛보고 있다 하니, 이는 남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욕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더욱 사랑스럽고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뜻은 오래도록 더욱 굳게 하여 남의 말에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곤궁하더라도 변하지 말고 外慕에 옮겨지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¹⁸⁾

성재의 出處進退觀 형성에는 스승 퇴계의 영향이 지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위에서 성재의 이른바 “結茅山間, 味衆人之所不味”야말로 학문하는 기쁨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한편, 성재는 일찍이 남명의 출처를 놓고 퇴계에게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南冥(曹植)과 一齋(李恒)은 사람됨을 한 마디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處士가 세상에 나가면 으레 말이 많은 법입니다. 지금의 시끄러운 것을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각기 스스로 그러한 말을 듣게 하였으니,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¹⁹⁾

남명과 일제가 무슨 말을 했기에 임금께 登對한 말을 가리켜 이러쿵저러쿵 하는지요? 申公 力行之 대답보다는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곳이 많습니다. 처사가 세상에 나오면 예로부터 말이 많은 법이니, 또한 무엇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겠습니까?²⁰⁾

위에서 ‘지금의 시끄러운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登對之言’이란

18)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 “京外榜出, 得失驚人, 波沸雲騰, 而本道榜內無賢名, 雖我不能不爲之恨焉. 今見來書, 無一語及之, 而結茅山間, 方修舊業, 味衆人之所不味, 此乃人所怪罵, 而吾心益以愛向焉. 此志久當益堅, 勿爲人言所搖奪. 此事窮且不改, 勿爲外慕所遷壞可也”(제3권, 107면)

19)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 “南冥一齋, 爲人未易以一語斷了. 自古處士出世, 例多議論, 今之紛紛, 何足怪哉? 然亦各其人以有以取之, 眞可戒懼耳”(제3권, 114~115면)

20) 『陶山全書』 卷32, 「答趙士敬」, “南冥一齋, 有何言論, 指其登對之言而云云乎? 似猶勝於申公力行之對, 而人多不滿處. 士之出, 自古多言, 亦何怪哉?”(제2권, 284면)

어떠한 내용일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명종실록』 21년(1566)조에는 언뜻 짐작이 될 만한 대목이 보인다.

남명과 일재가 한양 거리에서 만났는데, 남명은 일재에게 “恒之는 큰 당의 도적이다. 나는 결국 큰 당의 무리에게 이끌려 供招에 따라 나온 사람이다”고 기롱하기도 했고, 일재가 퇴계의 학문이 문장을 통해 들어왔다면서 비판하자 남명은 “그의 학문을 공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공은 활쏘는 법을 논할 뿐이고 나는 그저 경서를 강론하는 법을 논할 뿐이니, 어찌 景浩(퇴계의 字)의 학문이 깊고 알음을 함께 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명종 21년, 曹植에 이어 成運·李恒·林薰·金範·韓脩·南彦經 등이 遺逸로 천거되어 이들에게 6품직이 내려지자, 이를 두고 말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남명과 일재가 퇴계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것도 사람들의 입에 올랐던 듯하다.

퇴계는 남명의 학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의 脫俗한 기상과 峻潔한 志行에 대해서는 稱道해마지 않았다. 성재가 31세(1560) 때 南遊의 길에 올라 丹城에서 歲暮를 당하여 시를 부쳐 왔을 때 퇴계는 方丈山人(남명 조식)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시 한 수를 지어 보낸 바 있다.²¹⁾ 성재는 이 당부대로 그 이듬해 4월 雷龍亭으로 남명을 찾아 뵈고 가르침을 받았다. 「南征」이라는 시의 小序에서는 일찍이 남명의 行義를 들은 적이 있노라고 하면서, “두류산의 老仙伯이 사람들의 경모심을 자아낸다”²²⁾고 술회하고 있다. 그가 남명의 탈속한 기상과 行義를 우러르고, 또 남명을 ‘仙伯’이라 한 점, 그리고 남명과 자신을 天淵에 비하면서 남명의 은륜을 배우겠노라[學隱淪]고 한 점²³⁾ 등은 성재의 출처진퇴관 형성과 관련하여 남명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21) 『陶山全書』 卷3, 「琴聞遠自丹城書來却寄一絕」, “歲暮難堪憶故人, 平安書到雪溪濱. 南行莫負酬心事, 方丈山中訪隱淪”(제1권, 104면)

22) 『惺齋集』 卷1, 「南征」, “頭流老仙伯, 令人起景慕”(515면)

23) 『惺齋集』 卷1, 「丹城客中 伏次退溪先生寄詩一絕」, “奔走風波患失人, 安閒不似退溪濱. 何當遊歷還歸早? 更向天淵學隱淪”(515면)

『논어』 「雍也」에서 '知者樂水 仁者樂山'이라 하였듯이 성재는 산수를 무척 좋아하였다. 천성이 나무 심기를 좋아하여 집 위의 산과 東溪의 院坪에 蒼松을 심어 울연히 숲을 이루었다고 하며,²⁴⁾ 또 61세 이후로 향리에 있으면서 易東 禹倬의 觀水臺와 그 부근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는데, 그 숲이 5리에 걸쳐 蒼翠蔚然하였으므로, 이를 '司評松'이라고 하였다 한다.²⁵⁾ 이 뿐만 아니라 그는 각지의 勝地를 遊歷하면서 心目을 넓히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의 자연 사랑은 실로 남달랐던 것 같다.

예안의 孤山은 성재가 藏修하던 곳이다. 대세(川沙村) 북쪽 10리쯤에 있다. 이곳에는 日洞(날굴)과 月明潭(달소)이 있어 景勝을 자랑하였는데, 우연하게도 이름이 서로 對句를 이루어 더욱 운치가 있었다. 그는 日洞의 산수를 매우 사랑하였으며, 35세 때(1564)에는 마침내 그곳에 日洞精舍를 짓고 藏修之所이자 逍遙杖履之所로 삼았던 것이다. '孤山主人'이라는 성재의 별호는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성재의 四男인 琴恪(금각)이 지은 「日洞山水記」²⁶⁾와 孤山의 別業에 대한 수많은 題詠을 보면 고산이 얼마나 勝地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재는 35세(1564) 때 자신의 학문 역정을 되돌아보면서, "사람이 본원을 함양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 처한 곳이 시끄러운가 조용한가에 달려 있지 않다, 뒷날 入山하는 자들은 나의 경우를 통해 경계할지이다"라고 하였다.²⁷⁾ 퇴계 역시 그 이듬해(1565) 조목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재의 안부를 물으면서 질책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였다.

24) 『惺齋集』 卷4, 「墓碣銘」 "性好種樹, 於屋上山及東溪院坪, 植以蒼松, 鬱然成林"(550면)

25) 『惺齋集』 卷4, 「遺事」 "庚寅棄官家居, 就村前江岸, 自易東之觀水臺, 手植松, 連亘五里, 蒼翠蔚然, 名曰司評松"(553면)

26) 『惺齋集』 卷4 所收(564~565면).

27) 『惺齋集』 卷3, 「普賢菴壁上書前後入山記」 "人之所養, 在用功之如何, 不係於所處之鬧靜也. 後之入山者, 於余戒之哉"(536면)

滉이 근일 조목에게 보낸 편지에서, “足下(금난수를 가리킴)는 어디에 있으며 무슨 공부를 하는가”라고 묻고, 또 “만약 글을 읽지 않는다면 孤山이 비록 좋다 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라고도 했습니다.²⁸⁾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했던 퇴계였지만, 학문이나 인격 수양과 관련이 없는 자연 사랑을 ‘玩物喪志’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젊은 제자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퇴계는 천성이 恬退를 좋아하였다. 그러면서도 제자인 성재에게는 과거를 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곤 했다.

國俗에 초야의 無名之人은 가다가다 자기 몸 하나도 부지할 수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마음으로 자제들에게 바라는 바는 오직 立身揚名하는 데 있으니, 말세에 과거 보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程朱 문하에서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고, 스승 역시 禁斷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려서 과거 공부도 겸해야 할 것입니다.²⁹⁾

즉, 과거 공부에 쫓겨서는 안 되겠지만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께서 늙으신 만큼 부득이 科業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었다. 이 당부를 몸에 새긴 그는 32세 때 司馬試에 급제한 뒤로 小成으로 만족하고 爲己之學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성재는 한 때 궁박한 살림살이에다가 자신에 대한 심한 自責, 그리고 학문에 대한 회의가 겹친 나머지, 학업을 등한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때 퇴계는 그에게 준엄한 질책을 내리는 한편, ‘誨人不倦’의 자세로 循循然하게

28)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 “滉近與趙士敬書, 問: 「足下何在, 作何工夫?」 且云: 「若不讀書, 孤山雖好, 何益?」”(제3권, 112면)

『陶山全書』 卷31, 「答趙士敬」, “聞遠讀書否? 不讀書, 孤山雖好, 何益於事?”(제2권, 265면)

29)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 “但於此有一焉. 國俗草澤無名之人, 往往有不能庇身之虞. 況親心所望於子弟者, 專在立養, 末世科名, 安可廢哉? 是故, 程朱門下, 鮮不應舉, 而師席亦不禁斷. 此意亦不可不熟慮, 而兼有攻業也”(제3권, 107면)

學海로 이끌었다. 1553년 성재 24세 때 보낸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지난 겨울 편지 한 통을 보낸 뒤에 회답이 없어서 혹시 유실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足下가 곤궁한 귀신(窮鬼)에게 회롱 당하여 마음먹은 학업을 버리려고 내 편지를 보고서도 모른 척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³⁰⁾

'窮鬼'라는 표현에서, 가난이야말로 학문하는 데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퇴계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또 조목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듣건대 琴聞遠이 학업을 게을리 하다가 폐하였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슬퍼서 어쩔 줄 모르게 합니다. 이 사람은 당초 몹시 좋은 사람이었으나, 어찌다가 이처럼 되었는지 모르겠소이다. 생각하건대 궁박한 가운데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길들여지고 골몰하게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의지가 돈독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진실로 뜻이 정성스럽고 돈독하다면 하나의 '窮'자가 어찌 뜻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 매우 두려워 할 만한 일이외다.³¹⁾

琴生이 남의 비방을 입은 모양인데 무슨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근자에 오래도록 보지 못하다가 지난번 山澤間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나절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면서도 단지 蘇東坡의 시 몇 구절에 대해 물을 뿐이었습니다. 매양 이 사람이 장차 「遂初賦」³²⁾를 찾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더니, 이제 서신을 받고 보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저 사람이 만약 자신을 모멸하고 자신을 파괴함이 이와 같을진대, 비록 현자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구제할 길이 없거늘, 하물며 나 같은 사람임에랴. 그러나 갑자기 서로 도의 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³³⁾

30)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 “去冬一書後, 未見來報, 恐書或浮沈, 復恐足下未免遂爲窮鬼所黷, 隳壞其志業, 雖見吾書, 不以省錄也”(제3권, 105면)

31) 『陶山全書』 卷31, 「答趙士敬」 “聞聞遠懶廢學業, 令人悼心失圖, 此人當初甚好, 不知何故如此, 想緣窮裏營生, 不知不覺, 馴致汨沒而然, 然此亦志不篤之故, 苟志之誠篤, 一窮字, 豈能奪之? (……) 此吾輩之至戒甚可懼也”(제2권, 247면)

32) 중국 쑤나라 때 孫綽이 지은 글(『晉書』 卷56, 「孫綽傳」). '遂初'란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在野에 묻혀 살고자 하는 初志를 이룬다는 말.

33) 『陶山全書』 卷31, 「答趙士敬」 “琴生被謗, 未知何等事耶, 近久不見, 頃嘗遇於山澤

이것은 일찍이 공자가 낮잠을 자는 宰予에게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糞土로 쌓은 담장은 흠손질할 수가 없다. 내 재여에 대하여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³⁴⁾라고 하여 깊이 꾸짖은 것을 방불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深責은 제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성재에 대한 퇴계의 자상한 가르침은 별세하던 그 해(1570)까지 계속된다. 다음의 편지글은 퇴계가 성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다. 사실상 告訣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편지 속에서 전일에 학문을 못하게 된 연유와 근일에 발을 잘못 내딛었다는 한탄은 모두가 꾸밈없는 중심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가상하고 가상합니다. 다만 이런 줄만 알고 깊이 생각하고 애써 고쳐서 만년의 효과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 일시적인 개탄과 자책이 비록 통절하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저 그대의 자품은 한편으로는 비록 밝으나 한편으로는 실로 어두우며, 또 부끄러운 줄도 알고 자신을 함부로 하지도 않으나 아직 시속의 소견과 名利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이것이 학문이 진취되지 아니하고 후회가 많게 된 까닭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학문으로써 自任하고, 또 세간으로부터 이런 명칭을 듣게 되니 마땅히 십분 노력하여 진실로 「學記」에 말한 바와 같이 ‘고개 숙여 부지런히 하여 죽은 뒤에야 그만둘 생각’을 해야만 그 본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남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³⁵⁾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에게 走馬加鞭할 것을 規戒하는 스승! ‘誨人不倦, 斃而後已’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인가 한다. 우리는 여기서 20년 師弟 관계가 참으로 돈독하였음과 간단치 않았음을 짐작케 된다.

성재는 한 평생 ‘學退溪’ 정신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그는 스승인 퇴계를

間. 坐語移晷, 只問坡詩數句而已. 每恐此人將不尋遂初賦矣, 今承所喻, 益以爲憂. 彼若自侮自壞如此, 則雖有賢者與處, 尙無救拔之路, 況如滉者耶? 然不敢遽相外也”(제2권, 247~248면)

34) 『論語』 「公治長」 “宰予晝寢, 子曰, 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 不可朽也, 於予與, 何誅?”

35)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제3권, 116면) 참조.

尊慕하고 信服하면서 師說宣揚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퇴계문집을 간행하는 일, 도산서원을 창건하는 일 등 실로 스승과 관계된 모든 일을 同門인 조목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이끌어 나갔다. 이 점에 있어서 그의 공은 도산서원 尙德祠에 배향되어 있는 월천 조목에 버금갈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재는 퇴계의 교화에 깊이 젖어 있는 예안현에서 향촌 사회의 美風과 厚俗을 지키는 일에도 각별히 노력하였다. 일찍이 퇴계가 정한 '溫溪洞約'을 손수 淨寫하여 거기에 약간 조를 추가하여 이로써 예안의 鄉民들을 反覆曉諭하였다. 봉화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퇴계의 향약에 대해 "우리 一鄉一里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국의 鄉里에 傳布하여 준수 시행함이 옳을 것이다"고 하면서, 부임하는 즉시 퇴계의 향약을 가지고 風俗을 敦化하는 등 '化民成俗'에 힘썼다.

한편, 「讀花潭集序」를 보면, 퇴계의 辨說을 이끌어 서경덕의 학설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대개 선생께서는 화담의 학문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변설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從遊諸公이 한결같이 尊信하여 더러는 화담을 일러 '실로 張子·邵子 등 제현을 겸했다' 하고, 더러는 '화담의 功이 橫渠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기도 한다. 오늘날 그 실상을 알지 못하니 어찌 靡然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⁶⁾

그러나 이와 같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辨說文字에서도 '一遵師說'이요 自得之見이 보이지 않음은 유감이라 할 것이다.

성재는 퇴계의 시호를 議定함에 있어, 古制에는 두 글자의 시호가 없다고 하면서, 한 글자의 시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退溪先生易名私議」(1574, 45세)에 실려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文·武·周公과 같은 大聖은 盛德으로 치자면 두 글자로도 다 나타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 『惺齋集』 卷2, 「讀花潭集序」(531면) 참조.

고 굳이 한 글자로 한 것은 뜻이 있다”고 한 뒤, 文·元·正 세 글자를 제시하면서, “퇴계의 도덕은 주자 이후 오직 한 사람이니 ‘文’이라는 한 글자를 버리고 무슨 글자로써 할 것인가”라고 주장하였다.

성재는 도산서원의 창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가 기술한 「陶山書堂營建記事」는 간략하기는 하지만, 도산서당을 창건할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살필 수 있는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기록은 도산서당이 도산서원으로 확대 영건되기까지의 사실을 담은 것으로서, 퇴계의 直傳高弟의 한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는 데서 신빙성이 높으며, 따라서 원형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³⁷⁾

이 기사를 보면, 도산서당을 營建함에 있어 조목과 그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도산서당이 「屋舍圖子」(오늘날의 靑寫眞)에 의거하여 지어졌으며, 또 승려인 法蓮과 淨一이 도편수로서 서당을 창건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건축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IV. 本源涵養과 主敬工夫

퇴계 학문의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心經』과 『性理大全』, 『朱子大全』을 들 수 있다.³⁸⁾ 『心經』이 涵養 쪽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성리대전』과 『주자대전』은 窮理 쪽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재는 퇴계의 영향을 받아 『심경』과 朱子書를 중시하여 평생토록 誦讀하였으며 終身之計로 삼았다 한다. 그의 학문의 출발점으로서 老境에 이르도록 專心한 것이 바로 『심경』과 朱子書였던 것이다.³⁹⁾ 그러나 성재의 학문은 『심경』을 바탕으로 한 함양 쪽에 비중을 두었다고

37)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外), 『陶山書院實測調查報告書』, 경상북도, 1991 참조.

38)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서울: 瑞文堂, 1973), p.118.

39) 『惺齋集』 卷4, 「遺事」, “仰質師門, 心經朱書, 先生之所發端於初, 而專心於晚暮者. 受

해야 될 것 같다. 일찍이 퇴계는 『심경』을 '神明과 같이 믿고 嚴父와 같이 존경하였다'고 하거니와, 성재에게도 『심경』을 읽을 것을 권유하면서, “만약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경』 공부를 쌓아 간다면 도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⁴⁰⁾고 하였다. 이 때 성재의 나이 24세(1553)였다. 퇴계는 이후로도 누차 『심경』을 表章하곤 하였다.

성재는 『心經』을 매우 존승하였고, 종신토록 『심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학문적 得力處는 『심경』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성재는 24세 때 『심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를 퇴계에게 올렸다.⁴¹⁾

西山一部倡斯文	西山眞氏가 『심경』 한 책으로 유학을 唱導하니
敬義相須養本源	경·의가 서로 짝이 되어 본원을 함양하네.
四子遺書共終始	四書와 유서는 함께 終始를 이루나니
何須別路更求門	어찌 딴 길에서 入道의 문을 찾을 것인가?

聖遠千秋天自文	성인과는 멀지만 천추에 글은 그대로요
幸從溪路溯眞源	다행히 퇴계의 길을 따라 참 근원 溯求했네.
窓明几淨書宜讀	창 밝고 책상이 깨끗하여 글 읽을 만 하니
分付山雲鎖洞門	산 구름에게 洞門을 닫아걸라고 분부나 할까.

또 퇴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스승의 「心經後論」(1566)을 읽고 24세 때 올린 시의 韻을 빌어 二絶의 시를 올린 바 있다.⁴²⁾

一部相傳未喪文	『심경』 한 책 전해와 유학이 없어지지 않았네.
玉淵秋月澹寒源	옥연에 가을 달 비치니 맑은 근원 澹如하기도 하다.
吾家早有南車訓	우리 儒家에 일찍부터 指南의 가르침이 있거니
途轍何曾各異門	途轍(道理)에 어찌 문을 각기 달리 한단 말인가.

而誦讀, 爲終身家計”(554면)

40)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 “心經苟能潛心積功, 入道之門, 不外於此”(제3권, 106면)

41) 『惺齋集』 卷1, 「讀心經書二絶上退溪先生」(512면)

42) 『惺齋集』 卷1, 「讀先師心經後論更用前韻二絶」, 참조(523면).

舜禹相傳到孔文 순·우가 서로 전하여 孔文에 이르렀으니
 洋洋洙泗接流源 양양한 洙泗가 원류에 접하였구나.
 始知妙契同群聖 묘계할 때 群聖과 함께 됨을 비로소 안다면
 主一關頭覓路門 主一의 關頭에서 길을 찾을 지어다.

이로써 볼 때, 『심경』에 대한 성재의 생각은 젊어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시종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에서 '指南의 가르침'⁴³⁾이란 '敬'을 말하며, '主一'이란 敬工夫로서의 '主一無適'⁴⁴⁾을 말한다.

성재는 25세 때 이미 예안현 孚浦의 東溪에 서재를 짓고 藏修之所로 삼았다. 이에 퇴계는 서재의 이름을 '惺惺齋'라 명명하고 七言 二絶을 주어 성재의 학문을 勉勵하였다.⁴⁵⁾ '惺惺齋'라는 그의 호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東溪深關小齋新 동계 깊숙한 곳에 작은 서재 열어 새로운데
 苔徑柴門迥絕塵 이끼 낀 길, 사립문이 紅塵을 멀리했네.
 爲問主人何事業 묻나니, 주인께서는 무엇을 업으로 하시고.
 寸膠功力自珍身 촌교의 공력⁴⁶⁾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珍重하시라.

河南門下謝先生 하남의 二程門下에 사선생이 계셨으니
 百聖心傳一語明 여러 성인의 心傳을 말 한 마디로 밝혔네.
 妙用深源都在熟 묘용과 심원이 모두 무르익을 양이면
 瑞巖稊稗不須評 서암승⁴⁷⁾이니 돌피니 평할 것 없다네.

43) 『心經附註』〈程敏政序〉“朱子亦曰：「程先生有功于後學，最是敬之一字。敬者，聖學始終之要也。蓋是經所訓，不出敬之一言」故其語約而義精，其功簡而致博。誠所謂障川之柱，指南之車，燭幽之鑑”(景文社 영인본, 5면)

44) 『心經附註』卷1, 13b “程子曰，主一之謂敬，無適之謂一”(景文社 영인본, 14면)

45) 『陶山全書』卷2, 「琴聞遠東溪惺惺齋二首」참조(제1권, 80면).

46) 아교가 아무리 투명하다고 해도 黃河의 흐린 물을 맑게 할 수 없다는 말. 『抱朴子』「嘉遯」“寸膠不能治黃河之濁”

47) 北宋 때의 高僧인 듯. 서암승이 매일 조석으로 自問하기를, “主人翁(心을 지칭 - 筆者註)이 惺惺한가”라 하고, 自答하되 “惺惺하다네”라고 하였다 한다. 『心經附註』卷1, 15b “朱子曰，瑞巖僧，每日間，常自問：「主人翁惺否?」自答曰：「惺惺」”(景文社 영인본, 15면)

『도산전서』에는 위의 二絶 밖에 없으나 『성재집』에는 다음의 二絶이 더 실려 있다.

易贊坤爻敬義功 주역에서 곤괘의 敬義 공부 贊하였고
 揭名堂室紫陽翁 명당실에 걸은 이는 紫陽翁(朱子)이라네.
 若知動靜皆爲一 動과 靜이 모두 하나가 됨을 안다면
 始信濂溪太極同 비로소 周子의 太極論과 같음⁴⁸⁾을 알리라.

精一心傳敬是要 惟精惟一 심법은 敬이 요점이라
 儘惺惺地自昭昭 성성한 바탕을 다하면 질로 昭然하리라.
 但加日用工夫在 단지 일용 공부에 가할지니
 莫學芒芒去掘苗 芒芒⁴⁹⁾한 宋人을 닮지 말아 掘苗를 없앨지이다.

퇴계는 이 시에서 心學의 淵源이 長久함을 밝히고, 심법의 요점이 '主敬'에 있으며, 主敬하는 방법이 '常惺惺'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성재에게 종신토록 主敬工夫에 힘써 성현의 傳心之要를 체득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재는 평소 治心之學에 많은 공력을 쌓았던 것 같다. 그는 心學과 관련하여 '함양공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저 물결이 출렁거리 파도가 세차게 일면 순식간에 못의 물이 흐려진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랴? 장마철의 흙탕물도 흐린 것이 걸리면 개이는 법, 이것은 물의 본체가 맑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本源을 함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다. 觀瀾軒(퇴계)의 가르침에 "깊은 못가

48) 『心經附註』 卷1, 12b "(……) 觀夫二者(敬義 - 筆者註)之功, 一動一靜, 交相爲用, 又有合乎周子太極之論, 然後知天下之理幽明鉅細遠近淺深, 無不貫乎一者"(景文社 영인본, 14면)

◎《合乎周子太極에 대한 心經釋疑의 註》"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태극이다. 靜함에 敬이 서서 體가 되고 動함에 義가 서서 用이 되는데, 마치 태극의 動靜이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르는 것이다"(心是人之太極也. 其靜也敬立而爲體, 其動也義立而爲用. 猶太極之動靜, 互爲其根故云)

49) 無知한 모습,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惺惺'과는 반대가 된다. 『孟子』 「公孫丑 上」 "心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有闕其苗之不長而掘之者, 芒芒然歸"; 朱註 "芒芒, 無知之貌"

에 입한 듯 날마다 성찰하라”하였고, 옛 사람(朱子)이 心法을 전하되 “달이 寒水에 비치네”라고 하였다.⁵⁰⁾

이것은 西厓 柳成龍이 세운 玉淵亭에 부친 銘의 一節이다. 銘이니만큼 사상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기는 어려웠겠지만, 이를 통해서도 그가 함양공부를 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治心工夫에 대한 논의는 퇴계와의 서신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 비록 오늘에 전하는 문자는 몹시 적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퇴계의 親切丁寧한 서신을 통해서도 그 一端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대가) 마음이 한없이 내달리고 飛揚한다고 하였는데, 나도 바로 이 병통으로 인해 늙도록 성취가 없습니다. 어찌 감히 그대를 위해 무엇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 모름지기 생각을 너그럽게 가지고 優游涵泳하여, 惺惺主人(마음)이 항상 照管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조금 簡約합니다만, 주자가 이른바 “마음이 발하기 전에는 尋覓(助長)해서는 안 되고 이미 知覺한 뒤에는 安排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일에 ‘莊敬涵養’하는 것으로써 本領工夫를 삼으라!”고 한 一節이 더욱 간절한 깨우침이 됩니다.⁵¹⁾

위에서 퇴계가 말한 ‘莊敬涵養 本領工夫’⁵²⁾는 『심경』에 나오는 말로서, 성재가 학문적 準的으로 삼아야 할 바를 指示한 것이라 하겠다.

성재의 ‘主敬涵養’은 常惺惺法에 바탕을 두었던 것 같다. 常惺惺은 宋儒 謝良佐(上蔡謝氏 : 1050~1101)가 法門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는 ‘主敬涵養’의 방

50) 『惺齋集』 卷3, 「柳而見玉淵亭銘」 “如彼風濤, 波濤激起, 造次淵渾, 而豈水性? 潦水霧霽, 本體之澄, 是以君子, 所貴涵養. 觀瀾遺訓, 臨淵日省, 古人傳心, 月照寒水”(538~539면)

51) 『陶山全書』 卷52, 「答琴聞遠」 “(……) 至於心之馳騖飛揚, 僕自正坐此患, 以至老而無成, 何敢爲君謀之? (……) 須寬著意思, 優游涵泳, 而惺惺主人, 常不失照管, 此法差爲簡約, 而朱子所謂: 「未發之前, 不可尋覓, 已覺之後, 不容安排, 惟平日莊敬涵養爲本領工夫」一節, 尤爲警切”(제3권, 106면)

52) 『心經附註』 卷1, 37a “朱子曰, 未發之前, 不可尋覓, 已覺之後, 不容安排. 但平日莊敬涵養之功至, 而無人欲之私以亂之”(景文社 영인본, 26면)

법으로 중시되어 왔다. 사랑좌는 二程門下의 三君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游酢(1053~1123), 楊時(1053~1135)와 함께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비록 후학들로부터 禪學의 氣味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는 하지만,⁵³⁾ '確實功夫'로써 일컬어지고 있다.⁵⁴⁾ 그 '확실공부'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敬'이요 '常惺惺'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좌는 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敬은 늘 정신이 깨어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⁵⁵⁾

'常惺惺法'이란 항상 이 마음을 불러 일으켜昏昏하지 않은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늘 깨어 있도록 하여[喚醒此心], 그 상태에서 허다한 도리를 照管하려는 방법이다.⁵⁶⁾ '照管'이란 사물을 照察하고 管攝(管轄統攝)한다는 뜻이다.⁵⁷⁾

常惺惺法은 성재에게 있어서 單傳의訣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성재의 학문에 대해 "평생 공부가 오로지 주경에 있었다"⁵⁸⁾고 한 것이라든지, "선생의 日用存養이 常惺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⁵⁹⁾고 한 것은 성재 학문의 大要를 잘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李晚燾가 퇴계와 성재의 관계를 程子 文하의 上蔡謝氏(良佐)에 비유한 것⁶⁰⁾은 문집의 序·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례적인 修辭가 아니라 할 것이다.

53) 『朱子語類』 卷101, 「程子門人」〈總論〉“伊川之門謝上蔡, 自禪門來, 其說亦有差”
上 同 “游楊謝三君子, 初皆學禪, 後來餘習猶在, 故學之者多流於禪”

54) 『朱子語類』 卷101, 〈程子門人 - 謝顯道〉“上蔡語, 雖不能無過, 然都是確實做功夫來”

55) 『上蔡語錄』 “敬是常惺惺法”

56) 『心經附註』 卷1, 16a “朱子曰, 吾儒喚醒此心, 欲他照管許多道理”(景文社 영인본, 16면)

57) 『心經釋疑』 卷1, 6b 참조.

58) 『惺齋集』 卷4, 「院宇移建時告由文」 “平生用功, 專在主敬”(556면)

59) 『惺齋集』 〈金道和序文〉 “先生之日用存養, 不出於常惺之法”(507면)

60) 『惺齋集』 卷4, 李晚燾撰 「跋」 “由後則以爲先生之於陶山, 如程門之有謝上蔡. 親承單傳一語, 蘊之爲德行, 發之爲政事”(565면)

V. 맺음말

일찍이 맹자는 “나의 소원은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⁶¹⁾고 하였거니와, 성재는 평생토록 스승인 퇴계의 학문을 師法으로 하였다. 그는 일찍이 溪門에 들어가 親炙함이 오래 되었으며, 마침내 이른바 ‘升堂觀奧’의 경지에 이르렀다. 성재의 학문은 先師의 가르침을 독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었으니, 이는 ‘學退溪’ 정신으로 일관된 그의 학문 역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西峒 柳根(1549~1627)이 성재의 학문 세계를 ‘奉以周旋, 罔或失墜’⁶²⁾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바 있다.

성재는 脫俗한 기풍을 타고난 데다가 퇴계의 恬退高風을 사모하였다. 그리고 평생토록 隱淪의 생활을 하면서 本源涵養에 힘썼다. 孔門의 제자들이 각기 그 所長에 따라 德行·言語·政事·文學의 四科로 분류되듯이⁶³⁾ 퇴계 문하의 제자들 역시 몇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孔門四科로써 비유하자면 성재는 단연 ‘덕행’에 해당될 것이다. 孔門에서의 顏淵의 위치에 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閔子騫·冉伯牛의 위치에는 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성재의 학문 본령은 窮理와 涵養 두 측면 가운데 함양 쪽에 비중이 있다. 이는 퇴계로부터 濬導된 것이다. 그는 『심경』을 몹시 중시하였다. 『심경』은 그의 학문적 得力處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朱子의 이른바 莊敬涵養을 本領工夫로 삼아 ‘常惺惺法’을 체득한 그는 후학들에 의해 二程 문하 三君子 가운데 한 사람인 謝上蔡에 비유되고 있다.

성재의 학문은 퇴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평생을 ‘學退溪’ 정신으로 일관하고 철저할 정도로 퇴계를 信服한 나머지 학문의 독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그의 학문이 갖는 하나의 특징이자 한계가

61) 『孟子』「公孫丑 上」“乃所願則學孔子也”

62) 『惺齋集』卷4, 柳根撰〈墓碣銘〉(550면) 참조.

63) 『論語』「先進」“德行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 政事冉有·季路, 文學子游·子夏”

아닐 수 없다. 물론, 종래 유교적 전통에서의 학문하는 방법과 근대적 의미의 학문 방법에는 분명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오늘날의 학문하는 잣대를 가지고 先儒들의 학문 세계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그것은 곧 성재가 窮理와 思辨보다도 存養과 省察을 위주로 한 까닭에, 여타의 학자들에 비해 철학적 분석을 담은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문집에 전하는 글 가운데 「讀花潭集辨」과 같은 것은, 제목만으로도 볼 때 상당히 精緻한 논리가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다. 철저할 정도로 師說에 의거하여 인용, 설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성재의 글쓰는 스타일, 더 나아가 학문적 一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앞에서, 성재의 저술이 온전히 전해 왔다 하더라도, 철학적 문제의식을 담은 글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단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이점은 성재 연구에 한계로 남지 않을까 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 중에는 성재처럼 이론을 세우기보다 踐履에 힘썼던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퇴계 문하의 제자들 중에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저술이 없거나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의 學行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줄 안다. 연구에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겠지만, 우선 이들에 대한 재인식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학계의 관심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惺齋集』(陶山及門諸賢錄 壹), 아세아문화사, 1982.

『陶山全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南冥集』, 아세아문화사, 1982.

『東儒師友錄』, 弗威文化社, 1977.

『朱子語類』, 保景文化社.

『心經附註』, 景文社, 1981.

『宣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